

澗松 全鑿弼 先生の 古美術品 蒐集

朴 廷 徽

故人の 中學校 同期 同窓(五年間) 거의 同班일 뿐 아니라 가장 오랜 親交를 맺어온 緣故가 있다고 해서 考古美術에 전혀 無關한 사람이 本文을 草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猥濫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故인이 趣味로서 작해서 거의 犧牲으로 글을 썼다 싶이 한 三十餘年에 巨한 丹誠어린 우리 民族文化財의 蒐集 保存이 大成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와 우리 겨레에 적지 않은 貢獻을 하게 된 由來를 門外漢의 所見대로 披瀝해 보려는 것이다.

무릇 한 가지 일에 三十餘年間(故人에게는 半生도 더 되지 않)이나 沒頭하는 데는 勿論 그 일에 큰 意義를 느끼는 까닭이 가장 重要な 基本條件이 되겠으나 故人の 境遇 筆者로서는 그분의 才質, 趣味, 性癖, 精神(思想) 등이 또한 不可分の 關聯性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터이다.

첫째 그분의 才質을 말하자면 文筆이 도저하다는 것이다. 그분의 遺墨으로 글씨에 뛰어난 才操을 엿볼 수 있으며 完全한 文章은 아닐망정 親知나 그子女들을 爲한 作號 作名 등으로 그분의 文筆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그분의 趣味는 廣範圍하였다. 讀書과 音樂, 美術鑑賞乃至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中學校時節부터 文學書籍을 耽讀하고 音樂會나 美術展覽會는 거의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던 것이 점점 讀書의 範圍도 넓어져 文學 美術 歷史 法律 經濟等 諸方面의 書籍도 涉獵 收藏하며 美術品도 參觀에만 그치지 않고 研究와 蒐集에까지 번져나갔으며 餘暇엔 揮毫도 해보는 趣味를 가졌던 것이다. 더우기 眉目이 秀麗한 富裕한 家庭의 貴童子로서 갖은 誘惑을 물리치고 絶對로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當時의 우리 風習으로는 特異한 일이었으며 이것이 그분의 平生事業에 적지 않은 影響을 끼쳤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第三卷 第二・三號 通卷十九・二十號

셋째 그분의 性癖이라고 할까 蒐集癖이 대단해서 웃느라고 新聞 한 장 雜誌 한 권 疎忽히 하는 일이 없으며 무엇이든 한번 手中에 들면 차곡차곡 간직해 두는 性味, 即 모든 재미 간직하는 재미를 아는 분이었으니 高貴한 우리 文化財를 對하는 態度야 말할 必要도 없다. 卑近한 例를 들면 그렇게 많은 庭園樹(北壇莊)의 꽃가지 하나를 누가 無心히 꺾어도 어차로 위하는 품이라 옆에서 보기도 憫惻할 程度이었다. 또 무엇에든 見聞을 넓히고 골똘히 研究해서 正確한 知識을 얻은 後에 손을 대는 性味이어서 그 所藏도 하나하나 精選된 것들임에 틀림 없다.

넷째 그분의 精神인데 널리 美를 追求하던 마음이 끝내는 내것 우리의 것을 보다 소중히 여기고 애써 간직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結晶되어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城北洞 由緒있는 자리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마당을 고르며 나무를 심고 우리의 옛 石物들(燈, 塔, 其他)을 샀히고 書며 畫며 土陶器, 金銀銅鐵 옛 器皿을 모아 놓고 뜻 맞는 분들과 하루의 淸遊를 즐겨하곤 하였지만 바로 中日戰爭에서 二次大戰에 걸친 時局下에서 뚜렷한 信念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이때 故人的 別邸 北壇莊에는 葦滄 石汀 春谷 靑田 心汕 諸氏外에 故權東鎭先生께서도 葦滄先生과 同伴하시곤 하셨다. 이 精神은 우리나라 國運이 다 기울어 合邦이 目睫에 迫頭했을 때 다음 世代的 實力培養으로 救國을 期하자는 建學精神으로 創立되고 三一運動과 直接 連結(當時 天道敎에서 經營)되었던 普成中學校의 設立者가 되어 오늘날까지 維持經營해 온 것과 相通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 高貴한 우리 古文化財에 對한 故人的 確乎한 精神에 적지 않은 暗示를 준 事實을 하나 指摘하면 日帝末期에 日人的 우리 文化財 抹殺政策이 積極露骨化될 무렵 當時 東京에 寓居中이던 李垠氏가 길은 뜻에서 李王家的 所藏을 爲始해서 總督府博物館所藏이며 其他 日人所藏의 우리 古美術品에다 日本의 新古美術品까지 出品케 하여 德壽宮陳列館에 한달에 한번씩 인가 交替陳列케 해서 彼我的 文化財를 比較鑑賞케 하므로서 우리의 眼目을 높이며 隱然中 우리의 民族意識을 깨우쳐 주었던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뛰어난 우리 文化財에 對해서 自矜自負할 수 있었던 것이

다. 故人은 새로 陳列될 때마다 筆者를 同伴 參觀하며 李垠氏의 말없는 壯學에 깊은 感銘을 받고 또 많은 敬意를 表했던 것이다.

이와같이하여 故人的 古美術品 蒐集은 一九二九年二十四歲에 日本留學을 마치고 歸國한 후부터 活潑하게 始作되었으며 書籍을 通해 研究하며 交換會 등에 直接 나가보며 故葦滄 吳世昌先生과 指導를 받으며 서울 釜山 東京等地에 있는 著名한 骨董商(日人 包舍)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는 韓 寬勳洞에 翰南書林을 後援 經營케 하는 등 徹底하고 緻密한 方法으로 逸品을 蒐集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뛰어난 物件이 나오기만 하면 價格의 高下나 所在의 遠近이 問題가 되지 않았다. 國內의 京鄕을 가리지 않았고 國外에까지도 찾아다녔던 것이다. 또 當時 우리側의 著名한 收藏家 張澤相 宋성준 閔奎植 其他 諸氏와 連絡하여 우리 文化財가 日人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牽制하기에 苦心하다가도 間或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境遇 그 慨歎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當時 日人側으로는 殖銀頭取 京電社長 등이 強敵이었던 듯하다. 勿論 앉아서 장만한 것도 많지만 安東까지 사람을 보내서 秘密裡에 訓民正音 原本을 求得해온 것이라든지 日本으로 실리기 直前에 入手한 新羅時代 五層舍利塔이며 金海에서 燕子樓 遺物을 (蓋瓦며 礎石까지) 몇 貨車에 실어온 것이며 日本까지 찾아가 英人 收藏家 카스피翁과 長時日을 두고 승강이를 한 끝에 『점은 이도 自己나라 古美術品을 이다지 애써 찾으려고 하니 참 놀라운 愛國者』라는 讚辭와 함께 國寶 數點을 讓與받은 것이라든지 모두 八・一五前의 일로 鐵石같은 信念과 犧牲精神이 없는 到底히 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蒐集品の 保存과 陳列을 爲하여 城北洞別邸에 個人博物館 葆華閣을 建立하였으나 八・一五以前에는 秘藏하고 一切 公開하지 않았으며 오직 普成中學校 卒業班 學生들에게만 故高裕燮先生의 解說附로 參觀케 하여 뛰어난 우리 古文化財에 對한 認識과 아울러 民族意識을 깨우쳐 주기에 힘썼던 것이다.

八・一五解放을 맞아 關係方面 人士에게 公開하는 한편 蒐集을 如前繼續하여 漢籍을 數千卷이나 購入하는 등 힘에 겨운 일도 서슴치 않았으며 더더우기 事變後로는 形便이 前과 같지 않은 데도 不拘하고 끝까지 손

을 떼지 아니 하였음은 實로 놀랄울 따름이다.

이 貴重한 收藏品 때문에 겪은 事變中의 蕉燥며 避難時의 苦心은 到底히 筆舌로 다할 수 없으며 確實한 過重의 犧牲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은 이 일을 爲해서 이 世上에 태어났던 것 같기도 하다. 近者에 文化財保存委員會 考古 美術同人 등에 關係한 後 그 識見이 더욱 圓熟해져서 앞으로의 業績이 크게 期待되던 차 忽然 他界하셨으니 哀惜하기 이를 데 없다.

부디 國寶를 爲始해서 珠玉같은 故人的 收藏品이 고이 간직되어 길이 이 나라 이 겨레의 자랑이 되므로써 在天의 靈魂에게 기쁨이 되기를 빌 따름이다. 一九六二・三・一五

潤松先生 靈前

崔 淳 雨

—— 서울은 그동안 제법 따뜻하더니 昨日부터 露下四、五度로 氣溫이 下降하여 今谷이 再昨年에 심어놓은 碧梧桐(그 동안 길길이 자랐읍니다)도 얼지말라고 짐으로 싸주었읍니다——

이것은 先生께서 지난 十二月 저의 巴里旅寓로 보내주신 마지막 글월의 귀절입니다. 梅峴書屋을 찾을 때면 그 東窓 문틈 위에 걸려 있는 阮堂先生의 「碧梧桐館」이라는 아담한 小額을 늘 버릇처럼 쳐다보곤 하면서 저 窓가에 정말 碧梧桐한 그루가 있었다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 어느 해 이른봄날 정말 굵직한 벼오동 몇 그루가 入手되어서 그 중 두어 그루를 그들에 심어드린 것입니다. 어쩌다가 선생께서는 이 梧桐나무 이야기를——이제는 마즈막이 된 글월속에 남겨 주신 것입니까! 지금 허전한 들에서 감싸주신 집너울이 누구의 손으로 비껴지기만 기다릴이 오동나무 이야기까지 이제 생각하면 그때 이미 저에게 주신 무슨 신비로운 啓示였던 것만 같아서 저는 이제 눈물을 삼킵니다.